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최고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기관
저신용자의 배제 규모에 대한 연구

2018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제 학 과

경 제 학 전 공

홍 희 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상봉

최고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기관 저신용자의 배제 규모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xclusion size of users due to
the change of the maximum interest rate



HANSUNG
UNIVERSITY

2018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제 학 과

경 제 학 전 공

홍 회 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상봉

최고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기관 저신용자의 배제 규모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xclusion size of users due to
the change of the maximum interest rate

위 논문을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제 학 과

경 제 학 전 공

홍 희 주

홍희주의 경제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최고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기관 이용자의 배제 규모에 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제 학 과
경 제 학 전 공
홍 희 주

본 연구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비은행금융권의 저신용자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정도를 추산하였다. 2010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신용자의 배제 정도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전체에서 고신용자와 중신용자의 신규차주수는 상승하는 반면, 저신용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비은행의 저신용자는 금융권 전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금융권 전체의 감소보다 작게 나타난다. 전체기간 금융업권별로 신용대출 현황을 통해 카드사의 신용대출 신규차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권 중 대부업의 신용등급별 변화를 살펴보면, 저신용자의 신규차주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규대출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금리 변동에 따른 배제규모 추정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제자수와 배제금액은 신규차주의 변화와 잔액을 기준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과소 추정될 수 있어 최소한의 배제자수와 배제금액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공급자의 비용이 수익

보다 커지는 경우,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급측면을
감안하면 배제자수와 배제금액은 현재의 추정규모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주요어】 최고금리, 대부업, 저신용자, 배제규모, VECM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1 연구의 배경	1
1.1.2 연구의 목적	2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II. 선행연구	4
2.1 선행연구 고찰	4
2.1.1 대부업체 원가분석	4
2.1.2 금리상한 인하에 따라 대부시장에서 배제되는 이용자 규모를 추정한 연57	
III. 현황	8
3.1 국민 신용등급 추이	10
3.2 금융권 전체 신규차주수 및 신규대출 현황	11
3.3 비은행 금융권 신규차주수 및 신규대출 현황	71
3.4 금융업권별 신규차주수 및 신규대출 현황	12
3.4.1 금융권 전체 현황	2
3.4.2 금융권 업별 현황	2
3.5 대부업 신규차주수 및 신규대출 현황	42
IV. 실증분석 결과	29

4.1 기술통계량	29
4.2 구조변화(Multiple Breakpoint Test)	33
4.2.1 Sequential Testing Procedures(순차적 검정의 절차)	33
4.3 단위근 검정 및 공적분 검정	33
4.4 회귀분석	33
4.4.1 분석결과	33
4.4.2 배제규모 산출	34
4.5 VECM 모형 추정결과	36
4.5.1 인과관계 검정	36
4.5.2 VECM 추정결과	37
4.5.2.1 금융권 전체 결과	37
4.5.2.2 비은행 결과	39
V. 결 론	41
참 고 문 헌	43
ABSTRACT	45

표 목 차

<표 1> 대부업체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 추이	9
<표 2> 개인신용등급별 전체 차주수	11
<표 3> 금융권 신규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현황	21
<표 4> 2010년 금리 변동에 따른 저신용자의 금융권 변화	41
<표 5> 2011년 금리 변동에 따른 저신용자의 금융권 변화	41
<표 6> 2014년 금리 변동에 따른 저신용자의 금융권 변화	51
<표 7> 2016년 금리 변동에 따른 저신용자의 금융권 변화	61
<표 8> 비은행 신규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현황	71
<표 9> 2010년 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의 저신용자 변화	91
<표 10> 2011년 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의 저신용자 변화	102
<표 11> 2014년 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의 저신용자 변화	102
<표 12> 2016년 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의 저신용자 변화	12
<표 13> 업권별 신규차주수	22
<표 14> 업권별 신규대출액	22
<표 15> 대부업 신규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현황	42
<표 16> 2010년 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의 저신용자 변화	62
<표 17> 2011년 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의 저신용자 변화	62
<표 18> 2014년 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의 저신용자 변화	72
<표 19> 2016년 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의 저신용자 변화	82
<표 20> 기초통계량	92
<표 21> Multiple Breakpoint Test 결과	13
<표 22> Augmented Dicky-Fuller Test	23
<표 23> Johansen Cointegration Test	33
<표 24> 금융권 전체 회귀분석	33
<표 25> 비은행 회귀분석	43
<표 26> 최고금리 20%인하시 저신용자(8~10등급)배제규모	53

<표 27> 최고금리 24%인하시 저신용자(8~10등급)배제규모	5· 3
<표 28> Granger causality 검정	63
<표 29> 금융권 전체 충격반응함수	73
<표 30> 금융권 전체 분산분해	83
<표 31> 비은행 충격반응함수	93
<표 32> 비은행 분산분해	04



그 립 목 차

<그림 1> 금리상한 및 대부업체수 추이	8
<그림 2> 금융권 전체 등급별 신규차주수	31
<그림 3> 금융권 전체 등급별 신규대출액	31
<그림 4> 비은행 등급별 신규차주수	81
<그림 5> 비은행 등급별 신규대출액	81
<그림 6> 금융업권별 신규차주수	32
<그림 7> 금융업권별 신규대출액	32
<그림 8> 대부업 등급별 신규차주수	52
<그림 9> 대부업 등급별 신규대출액	52
<그림 10> 금융권 전체 충격반응함수 결과	83
<그림 11> 금융권 전체 분산분해 결과	83
<그림 12> 비은행 충격반응함수 결과	93
<그림 13> 비은행 분산분해 결과	04

I.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2017년 3월 16일,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은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3대 근본 대책과 7대 해법 제시하였다. 가계부채 3대 근본 대책은 소득주도 성장,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 능력을 높이고, 생계형 대출수요를 줄여 국가 경제를 살리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한다. 둘째,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운영한다. 가계부채 7대 해법은 총량관리제 도입, 대부업 이자율 상한 조정, 채무조정 등이 있다.

최고금리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2년에는 66%, 2007년 10월 49%, 2010년 7월 44%, 2011년 6월 39%, 2014년 4월 34.9%, 2016년 3월 27.9%이다. 2016년 3월 2일 금리상한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하여 2016년 3월 3일부터는 연 34.9%에서 27.9%의 금리상한이 적용된다. 특히,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는 것은 여러 시장과 취약계층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최고금리 상한을 두는 것은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 등 여러 분야의 시장 축소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인 여신전문업, 대부업에 시장 축소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장 축소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동이 불법 사금융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1.1.2 연구의 목적

시장 축소에 따른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 이용자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정도를 추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장애인, 저소득층, 노령자 등으로 한정할 수 있다. 장애인, 저소득층, 노령자의 많은 부분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최고금리 변경에 따른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저신용자의 변동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시장 축소에 따른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고금리를 임기(3년) 내에 24%까지 하락시킨다고 언급한 바가 있으므로 현 정부 내에서 점진적인 최고금리 인하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시장에서의 저신용자 배제 규모와 변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간별, 신용등급별, 등급별 평균금리, 이용가능한 업권별 인원수 및 대출자 수를 통해 최고금리 변동에 따른 신용등급별 추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최고금리 변동에 따른 1인당 대출규모 등의 변동 파악으로 신규 대출자의 시장 진입 정도와 기존 대출규모를 살펴볼 것이다. 경기를 반영하여 실제 최고금리 변동에 따른 신용등급별 인원 중에서 경기변동의 효과를 제거한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신용등급별 인원 변동은 최고금리, 경기변동, 금융 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신용평가회사의 등급 정책 변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최고금리와 경기 변동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최고금리 27.9%에서 1%p 인하에 대한 신용등급별 인원수 및 배제규모 파악하고, 저신용자 배제 규모와 변동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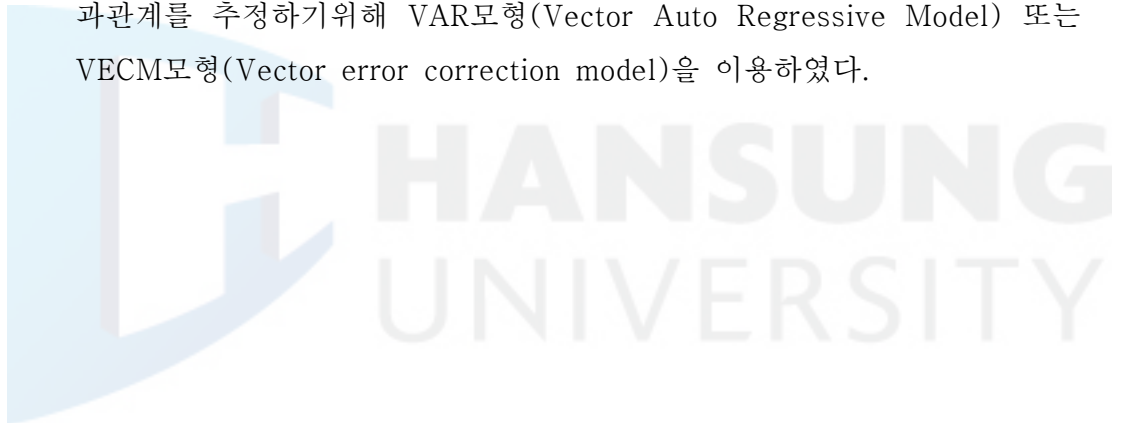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대출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월별, 업계별, 등급별 신규 신용대출을 통해 저신용자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였다. 기간은 2010년 7월부

터 2017년 7월말까지이며, 대상은 해당월 발생일자가 속한 신규 대출자의 NICE CB 신용대출건을 사용하였다. 대출대상의 등급은 대출 발생일의 전월말 기준 CB등급을 사용하였다. 업계는 은행, 카드,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대부, 기타(신협 협동조합/새마을금고)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월별 자료를 통해 각각의 독립변수들과 저신용자의 차주수간에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금리와 경기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산업생산지수, 금리로 구성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종속변수인 설명변수들이 저신용자의 차주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저신용자의 비중 변화를 파악하여 배제 규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변수들간에 나타나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VAR모형(Vector Auto Regressive Model) 또는 VECM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였다.



II. 선행연구

2.1 선행연구 고찰

금리상한 변동에 따른 이용자 배제를 분석하는 연구는 주로 공급자 위주로 분석되고 있다. 크게 대부업체의 원가금리 추정에 관한 연구와 금리상한 인하에 따라 대부시장에서 배제되는 이용자 규모 추정 연구로 나누어진다.

2.1.1 대부업체 원가분석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2008)은 대부업체에서는 대손이 발생한 금액을 제외한 대출금으로부터 앞서 나열한 비용들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의 원가금리는 총대출금에서 대손비용을 제외한 후 추정한다고 보았다. 원가금리는 $(\text{자금조달비용} + \text{판매비와관리비} + \text{대손비용}) / (\text{총대출금} - \text{대손비용})$ 으로 계산하였다. 2008년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중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평균 연 45% 가량이며, 대출원가가 40%으로 나타난다. 대출원가 구성요소를 보면, 대손상각비 15%, 자금조달비 15%, 일반관리비 10%로 나타나는 반면, 일본에서 저금리 대부업 대출이 가능한 것은 자금조달비와 대손상각비기 각각 3%, 2%대로 한국보다 낮다고 보았다.

이순호·이상제·박창균·정도진(2009)은 대부업체가 대출을 할 때 필요한 자금조달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한 손익분기점 개념의 원가금리를 산출하였다. 자료는 2009년 3분기 31개의 대부업체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사용하였다. 원가금리는 $(\text{자금조달비용} + \text{판매비와관리비} + \text{대손비용}) / (\text{총대출금})$ 으로 계산하였다. 여기서 자금조달비용은 타인자본에 대한 조달비용과 자기자본에 대한 조달비용을 포함하였다. 타인자본은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및 기타 이자비용으

로 손익계산서 상의 차입이자와 외화거래차손의 합이다. 자기자본비용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이라는 자기자본비용의 정의를 이용하여 자본금을 예금 및 투자 등 다른 방식으로 운용할 때 발생하는 이자수익이나 투자수익을 기회비용으로 간주하였다. 안전자산인 예금금리 수준과 대부협회 자료 상 이자비용을 임의적으로 자기자본비용율로 가정하고 이를 자기자본평잔에 곱해 자기자본비용을 계산하였다. 판매관리비는 직·간접적으로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다.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비용, 광고선전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대손비용률을 0%에서부터 15%까지 변화시키면서 원가금리 측정하였고, 대손비용률은 대손비용/총대출금으로 계산하였다. 자기자본비용률은 0%부터 10% 이내로 변화시키면서 원가금리를 추정하였다.

이민환·한재준(2012)은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총원가에 마진을 더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2010년 총원가는 대략 31.7%이며, 조달원가(14.5%), 판매비 및 관리비(9.8%, 중개료 포함), 대손상각비(6.8%, 연체손실 등 포함)등이 포함되었다.

노형식·이대기·한재준(2013)은 이순호 외(2009)의 방법을 사용하여 원가금리를 추정하고, 원가금리의 세부항목 중 어떤 항목의 하락폭이 컸는지를 검토하였다. 자료는 2011년~2012년 36개 대부업체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정보를 이용하였다.

2.1.2 금리상한 인하에 따라 대부시장에서 배제되는 이용자 규모를 추정한 연구

노형식·이대기·한재준(2013)은 금리상한이 35% 혹은 30%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대부시장에서 배제되는 이용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39%에서 30%로 인하하는 경우 이자비용 경감 혜택보다 대출거절로 인한 금융비용이 훨씬 크며, 혜택을 받는 대출이용자수의 두 배 이상의 금융소비자가 서민금융시장에서 구축된다고 보았다.

금리상한이 39%에서 30%로 인하되는 경우, 74.1만명의 구축 발생하였다. 현재 30%이상 고금리대출 이용자 316.8만명 중에서 204.1만명이 연간 총 5,260억원(1인당 약 25.7만원) 정도의 이자비용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12.2만명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이 모두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대략 5,370.4억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현재 대출거절자 중 불법사금융 이용률이 34% 정도임을 감안할 경우, 38.1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여 1,822억원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74.1만명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수진(2016)은 2014년 기준, 신용등급별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대손율 11%인 경우를 손익분기점의 하한, 대손율 15%인 경우를 손익분기점의 상한으로 가정하였다. 2011년~2014년 7월까지 재무제표 분석이 가능한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추정한 대손비용/총대출금이 최소 11.7%(2013년), 최대 14.7%(2011년)이므로 상한과 하한을 15%와 11%로 설정하였다. 금리상한 27.9%하에서 대손율이 11%인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신용등급 8등급 이하 고객의 대손율이 15%인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고객이 대부시장에서 구축된다고 보았다. 금리상한이 34.9%일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신용등급 9등급 이하 고객도 부분적으로 신용공급이 이루어지므로 모두 구축되기보다는 일부에게는 신용공급 가능하며, NICE 평가정보 2014년 기준 대부업체 고객 중 9등급 비중은 15.3%, 10등급 비중은 10.4%를 차지한다. 중위등급은 타 업권과의 경쟁이 심화되어 고객 비중을 단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우므로 신용등급 외 정보를 이용해 저신용자라도 상환의지가 높은 고객을 일정부분 선별하였다. 금리상한이 연 27.9%로 인하되면 대부시장에 구축되는 저신용자 규모는 최소 35만명(대손율 11%)~최대 74만명(대손율 15%)로 추정하였다. 금리상한 인하에 따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배제된 고객이 5~6등급의 고객으로 대체된다면 대부업체의 손익분기점 감소치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저신용자 고객 중 10%만 대출이 연장된다면 대부업체 원가금리는 6.6%p 하락하며, 40%가 대출이 연장될 경우 4.4%p 하락

할 것이다. 34.9%에서 27.9%로 7%p 하락하므로 기존 저신용자 중에서 10%만을 유지한다고 할 때 최소 35만명(대손율 11%)~최대 74만명(대손율 15%)으로 추정하였다. 저신용자 고객 중 40%가 대출이 연장될 경우, 대부시장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신용자의 수는 23만명~49만명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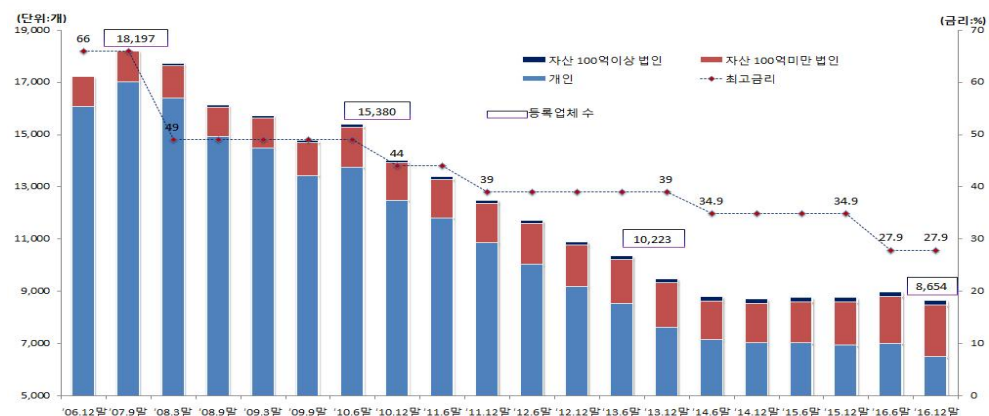
심지홍(2014)은 저신용자가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서민금융상품, 대부업 대출, 불법사채를 들고 있다고 예상하였다. 서민금융상품은 정부가 공급하며 대부업 대출은 합법시장, 불법사채는 불법시장을 통해 공급한다. 그러나 대부업 상한금리는 34.9%인데 비해 서민금융상품은 12%로서 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정부로부터 싼 금리의 선물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대부업 대출과 서민금융상품 간의 금리역차별로 인하여 대부업 수요자마저 서민금융상품을 희망하는 시장왜곡 현상 발생한다고 보았다. 저신용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은 서민금융상품, 대부업 대출의 순이며, 이 두 상품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는 사각지대의 금융소외자로서 불법사채 시장 외엔 갈 데가 없다고 예상하였다.

Ⅲ. 현 황

2016년까지 이루어진 금리상한 인하 과정에서 대부업체 수는 감소하고 총 대부잔액 및 거래자 수는 증가하였으며, 대부시장은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되었다.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리상한이 66%였던 2007년 9월말 18,197개사에 이르던 대부업체 수는 2010년 12월 14,014개사, 2016년 12월말 8,654개사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대부업체 수의 감소는 주로 개인 대부업체수의 감소 때문이다. 개인 대부업체수는 2010년말 12,483개사에서 2016년 12월말 6,498개사로 감소하였다. 반면, 법인 대부업체수는 2010년말 1,531개사에서 2016년 12월말 2,156개사로 증가하였고, 법인 대부업체 중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의 수는 2010년말 100개사에서 2016년 12월말 187개사로 증가하였다.

금리상한의 하향에도 불구하고, 총대부잔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거래자수는 감소하였다. 총대부잔액은 2010년말 7조 5,655억원에서 2016년 12월말 14조 6,48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대부잔액의 증가는 대부분 대형 대부업체 잔액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그림 1> 금리상한 및 대부업체수 추이



자료: 금융위원회(2016)

대부업 거래자수¹⁾는 2010년말 약 221만명에서 2016년 12월말 약 2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대부업 거래자 수는 2010년말 약 221만명에서 2015년말 약 268만명으로 47만명 증가하였으나, 2016년 12월말 약 250만명으로 감소 하였다. 예년의 거래자 수 증가 역시 대형 대부업체의 거래자 수 증가에 기인 하였는데, 대형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2010년말 197만명에서 2015년말 244 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2016년 12월말 231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자산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형 법인 대부업체의 거래자 수는 2016년 12월말 6.3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2016년 12월말 대형 대부업체의 대부잔액은 12조 8,319 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의 87.6%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전체 거래자의 94.7%가 대형 대부업체를 이용하였다.

<표 1> 대부업체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 추이

(단위 : 억명, 만명, %)

	‘10.12말	‘11.12말	‘12.12말	‘13.12말	‘14.12말	‘15.12말	‘16.12말
법 인	71,292	82,276	81,954	95,050	105,733	125,995	139,503
	(204.4)	(236.6)	(235.6)	(233.9)	(234.7)	(253.2)	(236.8)
자 산 100억원 이상	65,562	76,528	75,845	88,604	99,254	117,820	128,319
	(196.8)	(230.1)	(228.0)	(226.4)	(227.3)	(244.1)	(230.5)
자 산 100억원 미만	5,730	5,748	6,109	6,446	6,479	8,175	11,184
	(7.6)	(6.5)	(7.6)	(7.5)	(7.4)	(9.2)	(6.3)
개 인	4,363	4,899	4,949	5,110	5,859	6,457	6,977
	(16.3)	(15.6)	(15.0)	(14.7)	(14.6)	(14.7)	(13.2)
합 계	75,655	87,175	86,904	100,160	111,592	132,452	146,480
	(220.7)	(252.2)	(250.6)	(248.6)	(249.3)	(267.9)	(250.0)

주: ()은 거래자 수

자료: 금융위원회(2010, 2014, 2016)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시장 공급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개인 및 자산 100억원 미만의 법인이 시장에서 도태되었으나 급격한 공급 축소는 없 었다. 전체 대부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상한 인하의 부정적 효과로 주로

1) 대부업 실태조사의 거래자 수는 여러 업체를 이용한 중복 차주를 제거하지 않은 값으로 알 려져 있어, 거래 건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언급되는 대부업체의 급격한 대출 공급 축소는 없었다고도 판단된다. 그러나 금리상한 인하 과정에서 발생한 총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의 증가가 대부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의 증가를 반드시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금리상한이 2002년 66%에 비해 절반 정도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상한 인하에 대해 공급자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용등급에 따른 수요자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 즉, 앞으로의 금리상한 인하에 대응하여 대부업체가 신용공급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대부업체 수의 축소 폭이 크게 줄어들고 대부잔액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며, 2016년 12월말에는 거래자수가 감소하였다. 또한 예전의 금리상한 인하 때와는 달리 2016년 3월 금리상한이 27.9%로 낮아진 후에는 거래자 수가 감소하는 등 기존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인상과 최고금리의 변화는 예전의 금리상한 인하시기와 달리 신용도가 높은 고객 위주로 고객군을 재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상황, 금리, 최고금리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금리상한 인하가 금융권 및 비은행 금융권의 신용등급별 이용자군, 특히 저신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3.1 국민 신용등급 추이

전체 국민의 신용등급별 전체 신용대출 차주수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고신용자는 증가하고 저신용자는 감소하였다. 1등급은 2012년에 비해 2017년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5~10등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를 보이며, 7~8등급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표 2> 개인신용등급별 전체 차주수

(단위 : 명)

등급	2012말	2013말	2014말	2015말	2016말
1	6,038,940	6,844,972	8,518,825	9,376,580	10,272,877
2	6,116,130	6,901,090	7,216,636	7,535,160	7,778,299
3	4,376,466	4,056,463	3,586,283	3,478,664	3,431,414
4	6,123,097	6,624,996	6,706,294	7,129,040	7,523,321
5	8,010,129	7,873,758	7,888,333	7,838,938	7,820,983
6	4,862,004	4,563,887	4,285,191	4,007,946	3,483,248
7	2,265,109	2,127,633	1,888,610	1,554,015	1,425,232
8	1,826,670	1,552,868	1,434,568	1,335,533	1,270,651
9	1,385,646	1,453,453	1,497,235	1,460,698	1,325,170
10	449,141	417,409	405,695	383,631	365,875
전체	41,453,332	42,416,529	43,427,670	44,100,205	44,697,070

3.2 금융권 전체 신규차주수 및 신규대출 현황

저신용자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8~10등급 또는 7~10등급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고신용자는 1~3등급, 중신용자는 4~7등급 또는 4~6등급, 저신용자는 8~10등급 또는 7~10등급으로 구분된다. 금융권 전체의 신규대출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고신용자(1~3등급)와 중신용자(4~7등급)가 증가한다. 2010년 7월(49%→44%) 이후, 1~8등급까지 2배 이상의 급증하였으며, 2011년 6월(44%→36%) 이후에는 1~6등급이 증가한다. 반면, 저신용자(8~10등급)는 2011년 최고금리인하 이후 감소하였다.

<표 3> 금융권 신규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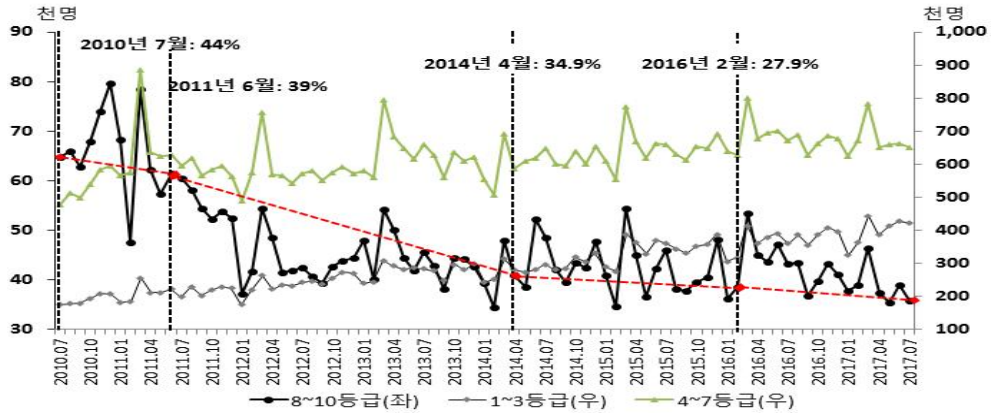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	신규차주수	300	634	778	937	1,069	1,430	1,531	950	7,629
	신규대출액	32,683	60,753	113,127	148,628	164,313	228,694	355,417	233,446	1,337,062
	총한도	90,867	171,542	226,778	284,899	331,228	450,119	468,199	301,491	2,325,123
2	신규차주수	395	892	1,032	1,255	1,302	1,571	1,721	1,088	9,256
	신규대출액	31,440	67,447	118,003	153,861	137,801	166,382	261,566	166,886	1,103,387
	총한도	87,316	184,076	232,391	293,428	270,091	328,894	329,975	206,326	1,932,497
3	신규차주수	450	1,050	1,068	1,152	1,089	1,150	1,209	746	7,914
	신규대출액	27,114	63,622	99,395	127,552	101,972	110,078	166,760	103,860	800,353
	총한도	72,625	171,616	194,300	223,414	191,942	208,564	206,324	126,821	1,395,607
4	신규차주수	850	1,500	1,538	1,831	1,862	2,041	2,192	1,355	13,169
	신규대출액	33,431	62,996	93,976	131,024	104,658	121,594	196,134	120,806	864,619
	총한도	84,626	161,799	180,743	223,128	194,437	227,081	240,261	144,527	1,456,602
5	신규차주수	1,200	2,230	2,137	2,389	2,323	2,450	2,589	1,521	16,839
	신규대출액	35,311	74,208	104,243	143,131	106,640	124,111	195,415	117,015	900,073
	총한도	96,296	184,589	195,374	230,925	186,704	217,902	233,946	135,908	1,481,645
6	신규차주수	633	2,195	2,033	2,222	2,114	2,268	2,407	1,327	15,200
	신규대출액	24,497	75,474	95,686	125,018	97,193	114,999	161,677	91,427	785,971
	총한도	51,407	167,930	165,710	185,854	149,753	170,652	184,111	101,374	1,176,792
7	신규차주수	525	1,513	1,234	1,154	1,012	1,029	971	501	7,940
	신규대출액	20,915	57,141	61,160	72,675	54,601	58,465	64,361	34,310	423,627
	총한도	40,065	110,981	95,876	98,052	74,573	76,284	70,255	36,856	602,943
8	신규차주수	260	542	385	385	359	358	338	181	2,808
	신규대출액	10,002	19,775	17,928	25,559	19,757	20,598	23,255	13,165	150,040
	총한도	17,822	37,145	28,353	34,111	26,317	26,029	24,720	13,767	208,263
9	신규차주수	94	110	79	97	105	102	126	70	784
	신규대출액	3,154	3,607	3,026	5,673	5,390	5,580	8,600	5,308	40,338
	총한도	5,960	9,234	5,235	7,796	7,117	6,992	8,973	5,416	56,723
10	신규차주수	62	55	55	55	54	44	48	20	392
	신규대출액	1,762	2,081	2,078	3,106	2,624	2,259	3,371	1,435	18,717
	총한도	4,616	4,015	3,408	4,284	3,584	3,082	3,487	1,459	27,935

주: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이며, 각 월별 합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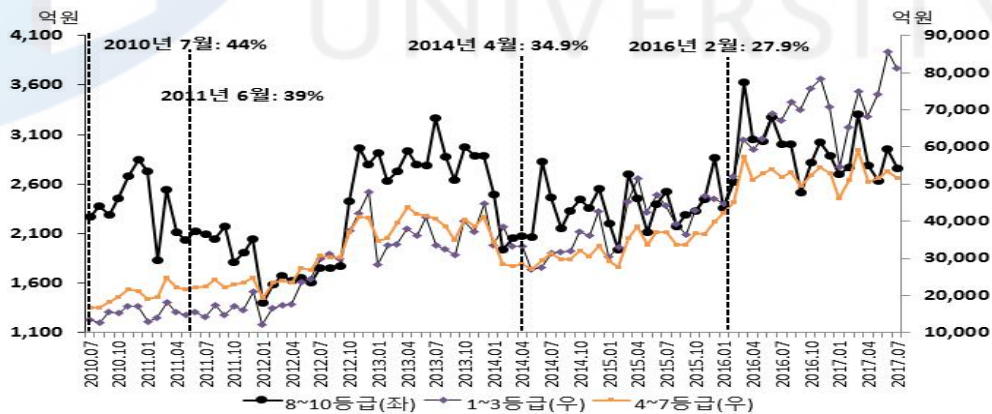
금융권 전체 신규차주수 신용등급별 변화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고신용자와 중신용자의 신규차주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저신용자의 신규차주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였다. 2014년 4월에 정체를하다가 2016년에 다시 하락하였다.

<그림 2> 금융권 전체 등급별 신규차주수



금융권 전체 신규대출액 신용등급별 변화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고신용자와 중신용자의 신규대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고신용자의 대출액은 2016년 변동으로 최대로 상승하였다. 저신용자의 대출액 변화는 2014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 증가하였다.

<그림 3> 금융권 전체 등급별 신규대출액



금융권 전체의 각 항목별로 변동 이전 3개월부터 변동 후 1년까지의 변화를 통해 저신용자에게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2010년 7월 금리 변동 이후, 신규차주수는 4만 8천명으로 2011년 2월까지 26% 감소하였다.

<표 4> 2010년 금리 변동에 따른 저신용자의 금융권 변화

(단위 : 천명, 억원)

최고금리 변동시기	경과	기간	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천명	변화율	금액	변화율	금액	변화율
2010년 7월	변동		65	0%	2,271	0%	4,523	0%
변동 후	2010년 8월	66	2%	2,376	5%	4,457	-1%	-4%
	9월	63	-3%	2,292	1%	4,267	-6%	3%
	10월	68	5%	2,453	8%	4,675	3%	7%
	11월	74	14%	2,683	18%	5,034	11%	22%
	12월	80	23%	2,843	25%	5,442	20%	35%
	2011년 1월	68	5%	2,734	20%	4,557	1%	4%
	2월	48	-26%	1,833	-19%	3,312	-27%	5%
	3월	79	21%	2,544	12%	5,296	17%	41%
	4월	62	-4%	2,113	-7%	4,354	-4%	25%
	5월	57	-11%	2,033	-10%	4,033	-11%	17%
	6월	61	-5%	2,126	-6%	6,330	40%	24%
	7월	60	-7%	2,094	-8%	4,020	-11%	16%

2011년 6월에 법정최고금리는 5%(44%→39%) 인하되었으며, 변동 기준으로 변동 2개월 전부터 차주수와 신규대출액, 총한도가 모두 감소하였다. 그 중 신규차주수는 3만 7천명으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신규대출액과 총한도는 각각 1,399억원, 2,419억원까지 감소하였다.

<표 5> 2011년 금리 변동에 따른 저신용자의 금융권 변화

(단위 : 천명, 억원)

최고금리 변동시기	경과	기간	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천명	변화율	금액	변화율	금액	변화율
변동 전	3개월	2011년 3월	79	28%	2,544	20%	5,296	-16%
	2개월	4월	62	1%	2,113	-1%	4,354	-31%
	1개월	5월	57	-7%	2,033	-4%	4,033	-36%
2011년 6월	변동		61	0%	2,126	0%	6,330	0%
변동 후	1개월	2011년 7월	60	-2%	2,094	-1%	4,020	-36%
	2개월	8월	58	-5%	2,042	-4%	3,903	-38%
	3개월	9월	55	-11%	2,177	2%	3,854	-39%
	4개월	10월	52	-15%	1,811	-15%	3,377	-47%
	5개월	11월	54	-12%	1,906	-10%	3,701	-42%
	6개월	12월	52	-15%	2,050	-4%	3,657	-42%
	7개월	2012년 1월	37	-39%	1,399	-34%	2,419	-62%
	8개월	2월	42	-32%	1,587	-25%	2,747	-57%
	9개월	3월	54	-12%	1,679	-21%	3,522	-44%
	10개월	4월	48	-21%	1,630	-23%	3,160	-50%
	11개월	5월	42	-32%	1,653	-22%	2,766	-56%
	12개월	6월	42	-32%	1,611	-24%	2,733	-57%

2014년 4월 법정최고금리는 4.1%(39%→34.9%) 인하 되었다. 신규차주수와 신규대출액 총한도는 모두 불규칙적인 증감을 보이고, 2015년 2월 각각 3만 5천명, 1,941억원, 2,466억원까지 감소하였다.

<표 6> 2014년 금리 변동에 따른 저신용자의 금융권 변화

(단위 : 천명, 억원)

최고금리 변동시기	경과	기간	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천명	변화율	금액	변화율	금액	변화율
변동 전	3개월	2014년 1월	39	-4%	2,493	20%	3,150	7%
	2개월	2월	34	-16%	1,943	-7%	2,654	-10%
	1개월	3월	48	17%	2,054	-1%	3,336	13%
2014년 4월	변동		41	0%	2,080	0%	2,955	0%
변동 후	1개월	2014년5월	39	-6%	2,063	-1%	2,758	-7%
	2개월	6월	52	28%	2,833	36%	3,559	20%
	3개월	7월	49	18%	2,467	19%	3,221	9%
	4개월	8월	42	3%	2,150	3%	2,808	-5%
	5개월	9월	40	-3%	2,325	12%	2,976	1%
	6개월	10월	43	6%	2,451	18%	3,192	8%
	7개월	11월	42	4%	2,363	14%	3,061	4%
	8개월	12월	48	17%	2,550	23%	3,347	13%
	9개월	2015년 1월	41	0%	2,204	6%	2,788	-6%
	10개월	2월	35	-16%	1,941	-7%	2,466	-17%
	11개월	3월	55	33%	2,698	30%	3,775	28%
	12개월	4월	45	10%	2,460	18%	3,224	9%

2016년에 최고금리는 34.9%에서 7% 감소한 27.9%로 인하되었다. 이는 기존 인하폭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인하되었다. 신규차주수는 7개월 후에 약 3만 7천명까지 감소하였다.

<표 7> 2016년 금리 변동에 따른 저신용자의 금융권 변화

(단위 : 천명, 억원)

최고금리 변동시기	경과	기간	신규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천명	변화율	금액	변화율	금액	변화율
변동 전	3개월	2015년 11월	41	5%	2,447	-7%	3,017	9%
	2개월	12월	48	25%	2,863	9%	3,519	27%
	1개월	2016년 1월	36	-6%	2,361	-10%	2,551	-8%
2016년 2월	변동		39	0%	2,627	0%	2,778	0%
변동 후	1개월	2016년 3월	53	38%	3,626	38%	3,832	38%
	2개월	4월	45	17%	3,056	16%	3,246	17%
	3개월	5월	44	13%	3,033	15%	3,257	17%
	4개월	6월	47	22%	3,280	25%	3,479	25%
	5개월	7월	43	12%	3,006	14%	3,148	13%
	6개월	8월	43	12%	3,001	14%	3,145	13%
	7개월	9월	37	-5%	2,514	-4%	2,624	-6%
	8개월	10월	40	3%	2,816	7%	2,942	6%
	9개월	11월	43	12%	3,022	15%	3,163	14%
	10개월	12월	41	6%	2,885	10%	3,014	8%
	11개월	2017년 1월	38	-2%	2,697	3%	2,810	1%
	12개월	2월	39	1%	2,771	5%	2,892	4%

3.3 비은행 금융권 신규차주수 및 신규대출 현황

비은행은 금융권 전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금융권 전체의 감소보다 작다.

<표 8> 비은행 신규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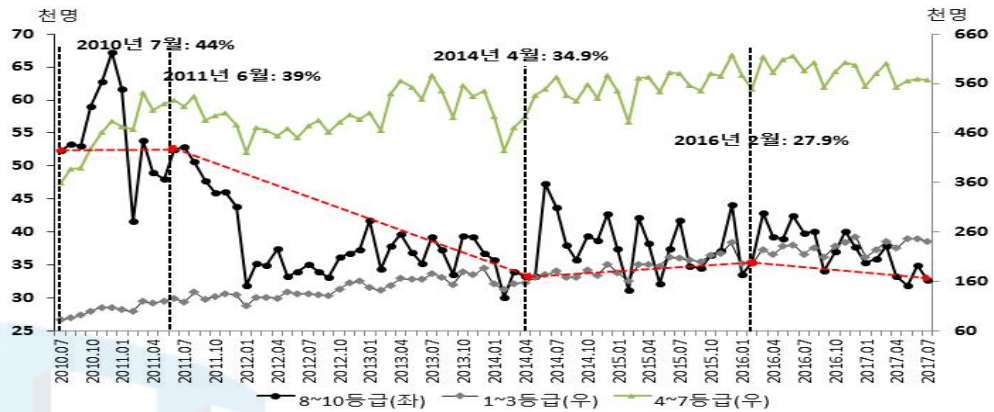
등급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	신규차주수	117	293	366	453	488	644	710	435	3,506
	신규대출액	8,130	18,366	34,051	64,174	45,126	67,389	100,346	65,466	403,048
	총한도	14,086	34,471	52,137	87,472	70,228	96,495	113,744	73,897	542,530
2	신규차주수	192	504	592	758	803	988	1,120	692	5,650
	신규대출액	11,086	24,732	40,640	79,022	54,560	74,003	118,437	75,619	478,098
	총한도	19,992	48,648	66,130	119,512	87,181	122,088	139,592	88,348	691,490
3	신규차주수	266	664	668	762	730	777	839	508	5,215
	신규대출액	11,874	27,139	39,378	71,845	45,308	53,206	82,736	51,274	382,760
	총한도	22,707	55,249	65,347	100,465	72,456	87,252	98,624	60,376	562,476
4	신규차주수	614	1,111	1,145	1,411	1,460	1,633	1,772	1,067	10,212
	신규대출액	19,575	35,258	50,465	93,448	69,250	86,126	138,140	84,310	576,571
	총한도	39,660	73,312	86,551	134,498	110,896	143,455	168,637	101,418	858,427
5	신규차주수	951	1,760	1,685	2,001	1,996	2,129	2,245	1,295	14,062
	신규대출액	26,217	49,291	64,701	112,141	82,513	100,553	153,214	90,383	679,013
	총한도	64,483	106,890	111,265	159,478	128,924	161,094	184,275	105,687	1,022,095
6	신규차주수	509	1,838	1,711	1,960	1,900	2,054	2,166	1,177	13,315
	신규대출액	19,231	56,659	68,670	104,352	82,814	101,270	134,414	75,042	642,452
	총한도	34,026	115,610	110,965	141,318	116,828	138,212	153,087	83,333	893,379
7	신규차주수	436	1,333	1,078	1,027	912	937	889	452	7,065
	신규대출액	18,099	48,561	49,658	63,389	48,066	52,869	55,389	28,948	364,980
	총한도	29,395	86,786	72,147	78,802	60,218	63,040	60,099	31,030	481,517
8	신규차주수	227	462	315	327	314	319	304	160	2,429
	신규대출액	9,246	17,515	14,747	23,026	17,678	18,886	20,185	11,350	132,634
	총한도	14,438	28,623	20,765	27,938	21,367	21,661	21,412	11,880	168,084
9	신규차주수	77	87	59	79	91	90	114	64	661
	신규대출액	2,815	3,072	2,354	5,024	4,781	5,063	7,670	4,885	35,665
	총한도	4,315	7,122	3,457	6,188	5,793	5,822	8,001	4,985	45,682
10	신규차주수	44	45	45	45	47	39	43	17	326
	신규대출액	1,342	1,756	1,613	2,629	2,273	1,947	2,839	1,168	15,567
	총한도	2,837	2,960	2,436	3,269	2,888	2,438	2,944	1,189	20,961

주1: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이며, 각 월별 합산임

주2: 비은행은 카드,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대부, 신탁/금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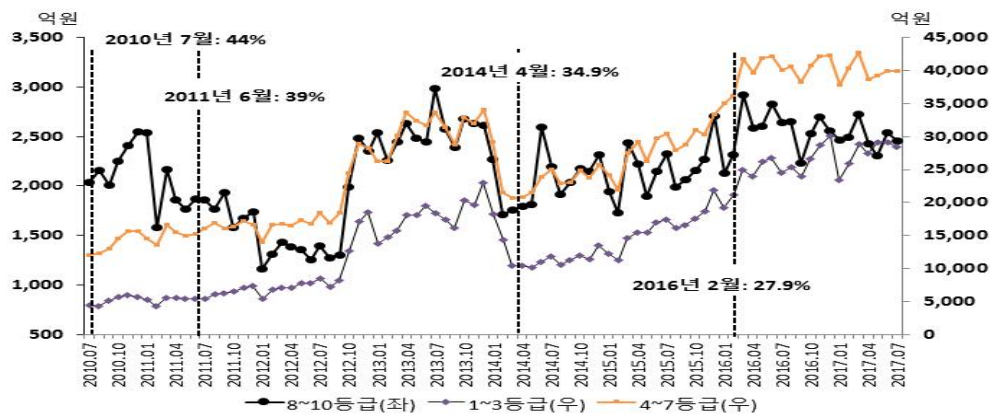
비은행의 신규차주수 변화는 고신용자와 중신용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저신용자는 하락하였다. 2011년 금리 변동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2014년 정세 후, 2016년 변동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그림 4> 비은행 등급별 신규차주수



비은행의 신규대출액은 중신용자보다 고신용자의 변화가 가장 크고, 저신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신용자의 신규대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5> 비은행 등급별 신규대출액



금리 인하가 비은행의 저신용자에게 변동 3개월 전과 12개월 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2010년 최고금리 변동 7개월 후인 2011년 2월에 신규차주수는 4만 2천명, 신규대출액은 1,583억원, 총한도는 2,550억원으로 가장 낮다.

<표 9> 2010년 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의 저신용자 변화

(단위 : 천명, 억원)

최고금리 변동시기	경과	기간	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천명	변화율	금액	변화율	금액	변화율
2010년 7월	변동		52	0%	2,034	0%	3,366	0%
변동후	2010년8월	53	2%	2,159	6%	3,321	-1%	3%
	9월	53	1%	2,010	-1%	3,154	-6%	4%
	10월	59	13%	2,248	11%	3,775	12%	16%
	11월	63	20%	2,405	18%	3,838	14%	25%
	12월	67	28%	2,548	25%	4,135	23%	65%
	2011년1월	62	18%	2,537	25%	3,879	15%	31%
	2월	42	-20%	1,583	-22%	2,550	-24%	10%
	3월	54	3%	2,164	6%	3,454	3%	39%
	4월	49	-6%	1,858	-9%	3,093	-8%	30%
	5월	48	-8%	1,770	-13%	3,039	-10%	32%
	6월	52	0%	1,872	-8%	5,315	58%	42%
	7월	53	1%	1,861	-9%	3,191	-5%	33%

2011년 6월 법정최고금리는 44%에서 39%로 5% 인하되었다. 신규차주수는 2012년 1월에 39% 감소한 3만 2천명이었고, 신규대출액과 총한도는 각각 38%, 65%까지 감소하였다. 금리 변동 1년 후, 2012년 6월에는 신규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가 각각 35%, 33%, 64% 감소하였다.

<표 10> 2011년 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의 저신용자 변화

(단위 : 천명, 억원)

최고금리 변동시기	경과	기간	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천명	변화율	금액	변화율	금액	변화율
변동 전	3개월	2011년 3월	54	3%	2,164	16%	3,454	-35%
	2개월	4월	49	-7%	1,858	-1%	3,093	-42%
	1개월	5월	48	-9%	1,770	-5%	3,039	-43%
2011년 6월	변동		52	0%	1,872	0%	5,315	0%
변동 후	1개월	2011년 7월	53	1%	1,861	-1%	3,191	-40%
	2개월	8월	51	-4%	1,769	-6%	2,994	-44%
	3개월	9월	48	-9%	1,932	3%	3,042	-43%
	4개월	10월	46	-13%	1,580	-16%	2,579	-51%
	5개월	11월	46	-12%	1,679	-10%	2,834	-47%
	6개월	12월	44	-16%	1,739	-7%	2,736	-49%
	7개월	2012년 1월	32	-39%	1,164	-38%	1,836	-65%
	8개월	2월	35	-33%	1,315	-30%	2,027	-62%
	9개월	3월	35	-33%	1,433	-23%	2,156	-59%
	10개월	4월	37	-29%	1,390	-26%	2,210	-58%
	11개월	5월	33	-37%	1,362	-27%	1,966	-63%
	12개월	6월	34	-35%	1,254	-33%	1,906	-64%

신규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모두 2개월 전부터 감소하였고, 이때 변동 전후를 포함 가장 낮은 변화율을 보인다. 2015년 2월 변동 10개월 후에 신용대출 규모가 신규차주수 3만 1천명, 신규대출액 1,727억원, 총한도 2,032억원으로 가장 낮다.

<표 11> 2014년 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의 저신용자 변화

(단위 : 천명, 억원)

최고금리 변동시기	경과	기간	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천명	변화율	금액	변화율	금액	변화율
변동 전	3개월	2013년 1월	36	8%	2,272	26%	2,753	25%
	2개월	2월	30	-10%	1,710	-5%	2,183	-1%
	1개월	3월	34	2%	1,759	-2%	2,294	4%
2014년 4월	변동		33	0%	1,797	0%	2,209	0%
변동 후	1개월	2014년 5월	33	0%	1,810	1%	2,219	0%
	2개월	6월	47	42%	2,592	44%	3,008	36%
	3개월	7월	44	32%	2,200	22%	2,653	20%
	4개월	8월	38	14%	1,917	7%	2,325	5%
	5개월	9월	36	8%	2,039	13%	2,451	11%
	6개월	10월	39	18%	2,174	21%	2,616	18%
	7개월	11월	39	16%	2,148	20%	2,585	17%
	8개월	12월	43	28%	2,315	29%	2,753	25%
	9개월	2015년 1월	37	13%	1,947	8%	2,322	5%
	10개월	2월	31	-6%	1,727	-4%	2,032	-8%
	11개월	3월	42	27%	2,435	36%	2,816	27%
	12개월	4월	38	15%	2,222	24%	2,571	16%

최고금리 인하 직후에 신규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가 22%, 26%, 27%로 증가하였다. 변동 7개월 후인 2016년 9월에 변동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신규차주수 약 3만 4천명, 신규대출액 2,228억원, 총한도 2,326억원으로 가장 낮다.

<표 12> 2016년 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의 저신용자 변화

(단위 : 천명, 억원)

최고금리 변동시기	경과	기간	신규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천명	변화율	금액	변화율	금액	변화율
변동 전	3개월	2015년 11월	37	5%	2,266	-2%	2,601	6%
	2개월	12월	44	25%	2,709	17%	3,057	25%
	1개월	2016년 1월	34	-5%	2,128	-8%	2,263	-8%
2016년 2월	변동		35	0%	2,319	0%	2,453	0%
변동 후	1개월	2016년 3월	43	22%	2,925	26%	3,108	27%
	2개월	4월	39	11%	2,586	12%	2,759	12%
	3개월	5월	39	10%	2,606	12%	2,772	13%
	4개월	6월	42	20%	2,829	22%	3,011	23%
	5개월	7월	40	13%	2,644	14%	2,768	13%
	6개월	8월	40	14%	2,647	14%	2,768	13%
	7개월	9월	34	-3%	2,228	-4%	2,326	-5%
	8개월	10월	37	5%	2,532	9%	2,642	8%
	9개월	11월	40	14%	2,695	16%	2,817	15%
	10개월	12월	38	7%	2,555	10%	2,673	9%
	11개월	2017년 1월	35	0%	2,461	6%	2,567	5%
	12개월	2017년 2월	36	2%	2,491	7%	2,597	6%

3.4 금융업권별 신규차주수 및 신규대출 현황

3.4.1 금융권 전체 현황

금융권 중 카드사의 신용대출 신규차주수가 가장 많으며, 은행, 캐피탈, 대부, 저축은행, 보험, 신탁/금고 순이다. 저신용자(8~10등급)의 신규신용대출은 대부(188만명), 은행(56만 9천명), 저축은행(56만 8천명), 카드(54만 9천명), 캐피탈(35만명), 신탁/금고(5만 9천명), 보험(9천명) 순이다.

<표 13> 업권별 신규차주수

(단위 : 천명)

등급	은행	카드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대부	신협/금고
1	4,123	1,742	1,251	233	51	14	214
2	3,605	3,673	1,246	342	85	46	258
3	2,700	3,632	974	236	103	67	202
4	2,956	7,608	1,386	464	268	233	254
5	2,777	10,126	1,761	414	825	690	247
6	1,885	6,991	1,904	257	1,826	2,145	192
7	875	1,511	1,182	71	1,537	2,645	119
8	379	364	289	8	427	1,297	45
9	123	98	45	1	87	418	11
10	67	87	16	0	54	164	3
전체	19,490	35,833	10,053	2,025	5,264	7,720	1,544

주: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임

금융권 중 신규대출액으로 은행이 가장 많으며, 캐피탈, 카드, 대부, 신협/금고, 저축은행, 보험 순이다. 저신용자의 신규대출액은 대부(9조 3,496억원), 캐피탈(3조 5,300억원), 저축은행(2조 7,462억원), 은행(2조 5,228억원), 신협/금고(1조 4,135억원), 카드(1조 3,261억원), 보험(213억원) 순이다.

<표 14> 업권별 신규대출액

(단위 : 억원)

등급	은행	카드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대부	신협/금고
1	934,014	90,366	206,579	27,606	12,065	1,914	64,519
2	625,289	155,410	203,271	30,565	13,741	4,156	70,955
3	417,593	131,613	155,283	17,867	14,041	5,618	58,338
4	288,048	243,565	196,680	30,327	26,927	16,242	62,830
5	221,060	265,395	220,227	21,147	64,811	46,117	61,317
6	143,520	152,490	202,821	10,938	117,436	119,770	38,997
7	58,647	21,273	117,382	2,022	76,189	125,535	22,578
8	17,405	9,191	29,603	176	20,461	62,189	11,015
9	4,673	1,825	4,248	31	4,580	22,477	2,504
10	3,150	2,246	1,449	6	2,421	8,830	616
전체	2,713,398	1,073,374	1,337,544	140,684	352,671	412,847	393,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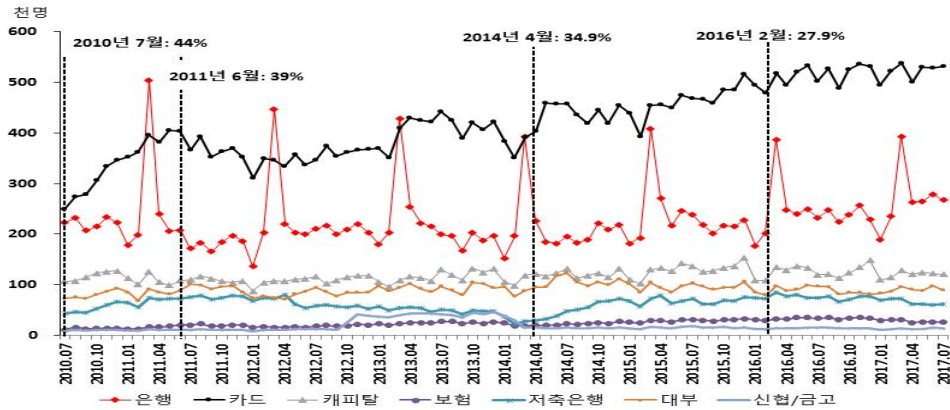
주: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임

3.4.2 금융권 월별 현황

월별/업권별 신규차주수를 살펴보면, 카드사의 신규차주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보험 신규차주는 변동이 작다. 은행이 3월에 주기적으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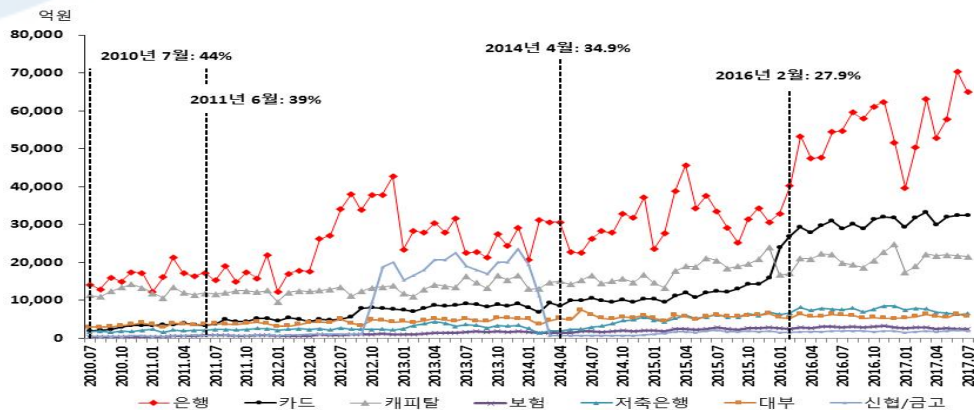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 6> 금융업권별 신규차주수



월별/업권별 신규대출액의 경우, 은행업은 최고금리 변동에 따른 변화가 크며, 카드사는 2016년 변동 이후 급증하는 반면, 대부업은 2016년 이후 하락하였다. 카드사는 최고금리 인하 구간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부업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16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하락하였다.

<그림 7> 금융업권별 신규대출액



3.5 대부업 신규차주수 및 신규대출 현황

대부업 연도별 신규대출자를 살펴보면,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모든 신규차주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감소한다.

<표 15> 대부업 신규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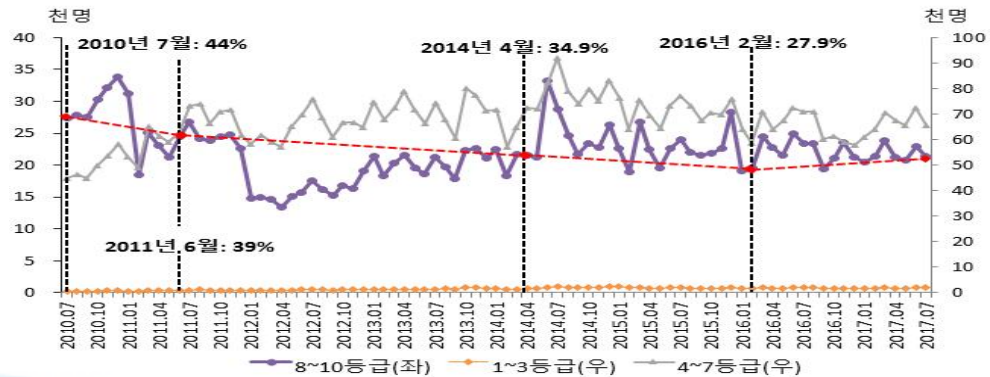
등급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	신규차주수	0	1	1	2	2	3	3	2	14
	신규대출액	35	49	103	219	222	420	548	318	1,914
	총한도	46	61	115	233	234	437	569	322	2,018
2	신규차주수	1	3	4	6	8	9	9	5	46
	신규대출액	77	169	366	581	575	874	967	547	4,156
	총한도	103	221	402	627	614	920	1,005	556	4,447
3	신규차주수	3	7	8	10	12	11	10	6	67
	신규대출액	183	346	635	901	825	994	1,100	633	5,618
	총한도	244	451	696	980	895	1,058	1,158	649	6,131
4	신규차주수	12	25	27	35	43	40	33	20	233
	신규대출액	657	1,094	1,832	2,549	2,601	2,925	2,913	1,671	16,242
	총한도	894	1,437	2,002	2,789	2,821	3,134	3,058	1,710	17,843
5	신규차주수	59	73	79	97	108	105	102	67	690
	신규대출액	2,748	3,364	5,265	6,569	6,800	7,717	8,480	5,174	46,117
	총한도	3,774	4,404	5,775	7,247	7,368	8,260	8,941	5,323	51,091
6	신규차주수	88	239	268	317	347	345	334	206	2,145
	신규대출액	3,950	10,556	14,740	17,103	18,641	20,739	21,351	12,692	119,770
	총한도	5,378	13,681	16,308	19,204	20,255	22,313	22,564	13,076	132,779
7	신규차주수	139	432	401	415	407	367	309	174	2,645
	신규대출액	5,499	17,392	17,916	18,636	19,979	19,586	17,061	9,466	125,535
	총한도	7,564	22,751	20,126	21,276	21,853	21,136	17,996	9,754	142,456
8	신규차주수	114	221	150	181	188	185	163	95	1,297
	신규대출액	4,225	8,508	6,246	8,005	9,606	10,194	9,497	5,908	62,189
	총한도	5,813	11,382	7,126	9,166	10,590	10,991	9,978	6,100	71,146
9	신규차주수	48	50	27	45	65	63	75	47	418
	신규대출액	1,697	1,849	971	2,251	3,535	3,663	4,933	3,578	22,477
	총한도	2,353	2,550	1,141	2,578	3,970	3,964	5,130	3,662	25,348
10	신규차주수	18	19	13	19	33	25	26	11	164
	신규대출액	659	988	552	1,172	1,691	1,416	1,643	708	8,830
	총한도	881	1,186	603	1,273	1,864	1,544	1,689	725	9,766

주1: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며, 각 월별 합산임

대부업의 신용등급별 변화를 살펴보면, 저신용자의 신규차주수는 꾸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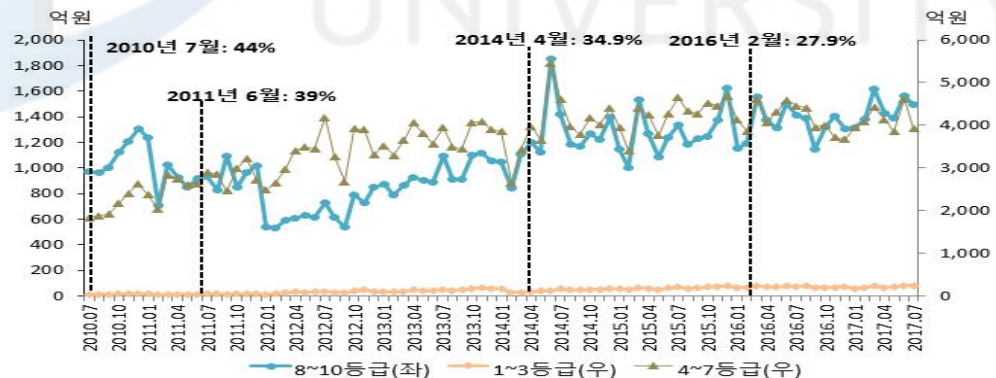
감소하였다. 고신용자는 변동이 거의 없으며, 중신용자의 경우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정체하였다.

<그림 8> 대부업 등급별 신규차주수



대부업 고신용자의 신규대출액 변동이 가장 작고, 중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신규대출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9> 대부업 등급별 신규대출액



2010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저신용 신규차주수, 신규대출액, 총 한도는 증가하였다. 2011년 2월에는 저신용 신규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가 각각 1만 8천명, 709억원, 975억원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표 16> 2010년 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의 저신용자 변화

(단위 : 천명, 억원)

최고금리 변동시기	경과	기간	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27	0%	975	0%	1,306	0%
2010년 7월	변동		28	1%	967	-1%	1,351	3%
변동 후	2010년8월	53	28	0%	1,006	3%	1,413	8%
	9월	53	30	11%	1,121	15%	1,572	20%
	10월	59	32	17%	1,205	24%	1,645	26%
	11월	63	34	23%	1,307	34%	1,760	35%
	12월	67	31	14%	1,235	27%	1,660	27%
	2011년1월	62	18	-33%	709	-27%	975	-25%
	2월	42	25	-9%	1,027	5%	1,383	6%
	3월	54	23	-16%	927	-5%	1,257	-4%
	4월	49	21	-23%	849	-13%	1,139	-13%
	5월	48	24	-11%	919	-6%	1,221	-7%
	6월	52	27	-3%	933	-4%	1,315	1%
	7월	53	1%	1,861	-9%	3,191	-5%	33%

2011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의 신규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는 감소하였다. 최고금리 인하 직후에 신규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는 각각 9%, 2%, 8%까지 증가하였다. 금리 인하 10개월 후인 2012년 4월에 신규차주수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각각 1만 3천명, 611억원, 702억원으로 감소하였다.

<표 17> 2011년 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의 저신용자 변화

(단위 : 천명, 억원)

최고금리 변동시기	경과	기간	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천명	변화율	금액	변화율	금액	변화율
변동 전	3개월	2011년 3월	25	3%	1,027	12%	1,383	13%
	2개월	4월	23	-6%	927	1%	1,257	3%
	1개월	5월	21	-13%	849	-8%	1,139	-7%
2011년 6월	변동		24	0%	919	0%	1,221	0%
변동 후	1개월	2011년7월	27	9%	933	2%	1,315	8%
	2개월	8월	24	-1%	824	-10%	1,055	-14%
	3개월	9월	24	-2%	1,096	19%	1,415	16%
	4개월	10월	24	0%	847	-8%	1,166	-4%
	5개월	11월	25	1%	965	5%	1,359	11%
	6개월	12월	23	-8%	1,014	10%	1,173	-4%
	7개월	2012년 1월	15	-39%	541	-41%	654	-46%
	8개월	2월	15	-39%	534	-42%	650	-47%
	9개월	3월	15	-40%	593	-35%	710	-42%
	10개월	4월	13	-45%	611	-33%	702	-42%
	11개월	5월	15	-38%	632	-31%	678	-44%
	12개월	6월	16	-36%	614	-33%	691	-43%

2014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은 모든 항목에서 증가하였다. 최고금리 인하 2개월 전인 2013년 2월에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변동 시점 기준으로 신규차주수는 12%, 신규대출액은 16%, 총한도는 16%로 감소하였다. 최고금리 인하 후 가장 낮은 시점은 10개월 경과 후인 2015년 2월로, 신규차주수는 1만 9천명, 신규대출액은 1,003억원, 총한도는 1,091억원까지 감소하였다.

<표 18> 2014년 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의 저신용자 변화

(단위 : 천명,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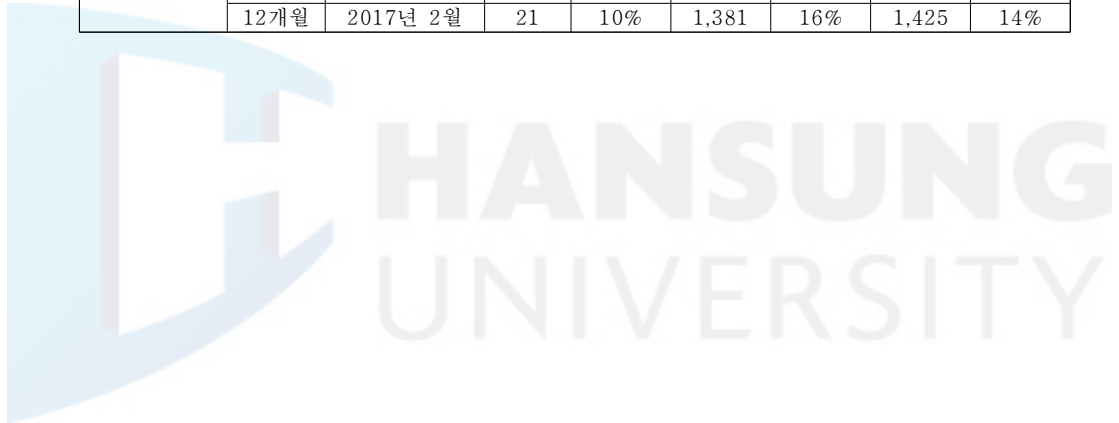
최고금리 변동 시기	경과	기간	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천명	변화율	금액	변화율	금액	변화율
변동 전	3개월	2013년 1월	22	4%	1,049	-12%	1,218	-7%
	2개월	2월	18	-15%	840	-30%	1,013	-22%
	1개월	3월	22	1%	1,106	-8%	1,302	0%
2014년 4월	변동		22	0%	1,198	0%	1,306	0%
변동 후	1개월	2014년 5월	21	-2%	1,126	-6%	1,230	-6%
	2개월	6월	33	54%	1,854	55%	1,977	51%
	3개월	7월	29	33%	1,421	19%	1,562	20%
	4개월	8월	25	14%	1,187	-1%	1,291	-1%
	5개월	9월	22	1%	1,168	-3%	1,278	-2%
	6개월	10월	23	9%	1,266	6%	1,383	6%
	7개월	11월	23	6%	1,220	2%	1,338	2%
	8개월	12월	26	22%	1,396	17%	1,526	17%
	9개월	2015년 1월	23	4%	1,145	-4%	1,249	-4%
	10개월	2월	19	-12%	1,003	-16%	1,091	-16%
	11개월	3월	27	24%	1,535	28%	1,640	26%
	12개월	4월	22	4%	1,268	6%	1,360	4%

2016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신규차주수는 증가하였다. 가장 낮은 시점은 7개월 후인 2016년 9월이며, 신규차주수는 1만 9천명, 신규대출액은 1,146억원, 총한도는 1,189억원이다.

<표 19> 2016년 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의 저신용자 변화

(단위 : 천명, 억원)

최고금리 변동시기	경과	기간	신규차주수		신규대출액		총한도	
			천명	변화율	금액	변화율	금액	변화율
변동 전	3개월	2015년 11월	23	16%	1,375	15%	1,474	18%
	2개월	12월	28	45%	1,626	36%	1,781	43%
	1개월	2016년 1월	19	-2%	1,152	-3%	1,210	-3%
2016년 2월	변동		19	0%	1,193	0%	1,248	0%
변동 후	1개월	2016년 3월	24	25%	1,554	30%	1,641	32%
	2개월	4월	23	17%	1,377	15%	1,458	17%
	3개월	5월	22	11%	1,311	10%	1,390	11%
	4개월	6월	25	28%	1,501	26%	1,577	26%
	5개월	7월	23	20%	1,412	18%	1,467	18%
	6개월	8월	23	20%	1,393	17%	1,446	16%
	7개월	9월	19	0%	1,146	-4%	1,189	-5%
	8개월	10월	21	8%	1,322	11%	1,362	9%
	9개월	11월	24	21%	1,407	18%	1,448	16%
	10개월	12월	21	9%	1,305	9%	1,360	9%
	11개월	2017년 1월	20	5%	1,310	10%	1,357	9%
	12개월	2017년 2월	21	10%	1,381	16%	1,425	14%



IV. 실증분석 결과

4.1 기술통계량

본 연구는 대출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월별, 업계별, 등급별 신규 신용대출을 통해 저신용자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였다.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이며, 대상은 해당월 발생일자가 속한 신규 대출자의 NICE CB 신용대출건을 사용하였다. 대출대상의 등급은 대출 발생월의 전월말 기준 CB등급을 사용하였다. 업계는 은행, 카드,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대부, 기타(신협 협동조합/새마을금고)로 분류된다. 종속변수는 신규 대출자 중 저신용자(8~10등급)의 차주수이며, 설명변수는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금리, 전산업생산지수, 전산업생산지수(CPI)와 법정최고금리이다.

전체 금융권의 신규차주수 평균은 46,869명이고, 금리, 전산업생산지수, 생산자물가지수(CPI), 법정최고금리는 각각 0.025, 107.724, 98.197, 0.362를 나타낸다. 비은행의 경우, 신규차주수의 평균은 40,173명이다.

<표 20> 기초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신규차주수	전체 금융권	85.000	34,450.000	79,716.000	46,869.720	10,017.240
	비은행	85.000	30,023.000	67,205.000	40,173.680	7,673.881
금리		85.000	0.013	0.036	0.025	0.008
전산업생산지수		85.000	91.000	127.800	107.724	6.313
CPI		85.000	90.884	102.860	98.197	2.947
최고금리		85.000	0.279	0.440	0.362	0.051

4.2 구조변화(Multiple Breakpoint Test)

최고금리 인하시기가 저신용자 차주수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검정이다. Multiple Breakpoint Test(Bai and perron, 1998)는 Chow test와 달리 미지의 다수 분기점들을 고려하여 이전 모형들을 발전시켰으며, 일반적인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는 기간, m은 잠재적 분기점들을 의미하며, 관측치들의 $T_j, T_j+1, \dots, T_{j+1}-1$ 시점에 대해서 어떤 사건 j가 존재한다면 아래와 같은 회귀 모형을 얻을 수 있다.

$$y_t = X_t' \beta + Z_t' \delta_j + \epsilon_t, \quad j = 0, \dots, m \quad (1)$$

회귀식은 변수 X부분과 Z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변수 X는 어떤 제도나 사건의 발생에도 변하지 않는 반면에 변수 Z는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계수 δ_j 를 가진다. 여러 분기점들에 대한 테스트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분기점에 대해서 전역 극대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순차적으로 결정된 분기점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세번째는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한 방법이 있다. Bai and Perron은 아래 회귀모형의 잔차제곱합을 최소화하는 m개의 분기점들을 확인하기 위한 전역 최적화 과정이다. 즉, m 분기점들의 특정 집합인 $T_m = (T_1, \dots, T_m)$ 에 대해서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S(\beta, \delta | T) = \sum_{j=0}^m \left\{ \sum_{t=T_j}^{T_{j+1}-1} y_t - X_t' \beta - Z_t' \delta_j \right\} \quad (2)$$

4.2.1 Sequential Testing Procedures(순차적 검정의 절차)

Bai는 하나 이상의 분기점을 찾는 직관적인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는 분기

점 테스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미지의 분기에 대해 파라미터 불변성을 검사하였다. 만약 불변성에 대한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분기점을 결정하고 표본을 두 개로 나누어 각 표본에서 미지의 단일 분기점 검정을 시행하고, 이 검정은 $1+1=2$ 라는 대립가설과 $1=1$ 인 분기들에 대한 귀무가설 검정으로 볼 수 있다. 모든 표본들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거나, 최대 분기점 수 혹은 최대 부표본 간격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한다.

Multiple Test는 전체 금융권과 비은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체 금융권 차주수는 sequential testing과 repartition testing 전체 등급, 고신용자, 중신용자에서 한번의 구조 변화점이 나타났다. 시점은 전체 등급과 중신용자에서 2011년 9월에 나타났고, 고신용자는 2012년 2월에 나타났다. 비은행의 경우, 전체와 고신용자는 한 번의 구조변화점이 발생하였고 중신용자, 저신용자는 3번의 발생 시점이 나타났다. 비은행의 저신용자에서 2011년 12월, 2014년 6월, 2016년 7월로 두가지 Test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부업의 경우, 전체와 저신용자에서 세 번의 구조변화점이 발생하였다. 저신용자는 모든 test에서 2011년 12월, 2013년 1월, 2014년 6월로 세 번의 시점이 동일하게 발생하여 최고금리 인하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신용자에 비해 저신용자의 유동성 제약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21> Multiple Breakpoint Test 결과

Break dates		sequential testing				Repartition testing			
		1	2	3	4	1	2	3	4
전체	전체	2011.09	—	—	—	2011.09	—	—	—
	고신용자	2012.02	—	—	—	2012.02	—	—	—
	중신용자	2011.09	—	—	—	2011.09	—	—	—
	저신용자	2011.12	2016.03	—	—	2011.12	2016.03	—	—
비은행	전체	2011.12	—	—	—	2011.12	—	—	—
	고신용자	2012.05	—	—	—	2012.05	—	—	—
	중신용자	2011.12	2016.05	2013.12	—	2011.12	2013.12	2016.02	—
	저신용자	2011.12	2016.07	2014.06	—	2011.12	2014.06	2016.07	—
대부업	전체	2014.06	2011.12	2016.08	—	2011.12	2014.06	2016.08	—
	고신용자	2013.10	2011.07	—	—	2011.07	2014.06	—	—
	중신용자	2015.02	2011.12	—	—	2011.12	2014.04	—	—
	저신용자	2011.12	2014.06	2013.01	—	2011.12	2013.01	2014.06	—

4.3 단위근 검정 및 공적분 검정

모형의 안정성을 위해 ADF(Augmented Dicky-Fuller Test, 1979) 단위근 검정법을 사용하여, 경기변동변수의 로그값에 대해 검정하였다. 금리와 최고 금리는 백분율 값이므로 100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CPI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1차 차분 후에는 모든 변수가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였다.

<표 22> Augmented Dicky-Fuller Test

변수		T-statistic	1계차분변수
저신용자	전체금융권	-1.943	-14.218***
	비은행	-2.086	-11.175***
금리		-0.429	-4.371***
전산업생산지수		1.141	-6.913***
CPI		-3.250**	-
최고금리		-0.822	-9.326***

주: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모형을 추정하기에 앞서 Johansen cointegration(1991,1995) 검정을 통해 공적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검정결과, 전체 금융권과 비은행 모두 5% 유의수준 하에서 공적분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전체 금융권 결과에서 공적분이 최대 1개가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최대 2개 이상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비은행에서는 공적분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최대 1개 이상의 공적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인다.

<표 23> Johansen Cointegration Test

Johansen-Fisher		Trace Statistics	P-value
전체 금융권	H_0 : 공적분 관계가 없다	184.364*	0.000
	H_0 : 최대 1개	57.890*	0.004
	H_0 : 최대 2개	23.231	0.235
	H_0 : 최대 3개	7.811	0.486
	H_0 : 최대 4개	0.359	0.549
비은행	H_0 : 공적분 관계가 없다	157.048*	0.000
	H_0 : 최대 1개	45.937	0.075
	H_0 : 최대 2개	20.858	0.367
	H_0 : 최대 3개	7.638	0.505
	H_0 : 최대 4개	0.324	0.569

주: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4.4 회귀분석

4.4.1 분석결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신규차주수 변화율 파악하였다. 금융권의 회귀분석 결과, 최고금리 하락에 따라 저신용자 신규 차주수 감소하였으며, 최고금리가 1%만큼 하락에 따라 고신용자 1.065% 증가, 저신용자는 3.585% 감소하였다.

<표 24> 금융권 전체 회귀분석

	전체	고신용자	중신용자	저신용자
금리	-3.226*	-11.231**	0.484**	1.283
IP	1.138**	1.154**	1.016	1.906**
CPI	1.825**	1.704**	1.818**	0.107
최고금리	0.428	-1.065**	0.647	3.585**

주: *, **는 각각 10%,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비은행의 회귀분석 결과, 최고금리 하락에 따라 저신용자 신규 차주수 감소하였으며, 최고금리 1% 하락에 따라 고신용자 2.132% 증가, 저신용자 3.398% 감소하였다.

<표 25> 비은행 회귀분석

	전체	고신용자	중신용자	저신용자
금리	-3.099**	-8.188**	-0.900	-3.061
IP	0.838**	0.919**	0.708**	1.568**
CPI	2.103**	1.892**	2.138**	0.456
최고금리	0.017	-2.132**	0.191	3.398**

주: *, **는 각각 10%,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4.4.2 배제규모 산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의 비중 변화를 파악하였다. 회귀분석으로 구해진 변화율에 저신용자 전체 차주수와 잔액을 곱하여 배제규모를 산출하였다. 등급별 잔액은 2015년말 기준이며 은행은 비은행과 중복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전체 금융권에서 비은행을 빼서 산출하였다.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는 경우, 국민 전체 저신용자 배제규모는 83.9만명, 금융권 52.3만명, 비은행 48.8만명으로 추정된다.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는 경우, 배제금액은 금융권 9.3조원, 비은행 4.7조원으로 추정된다.

<표 26> 최고금리 20%인하시 저신용자(8~10등급)배제규모

(단위 : 명, 억원)

차주수	계수	최고금리 변동	저신용자 차주수	배제자수
국민 전체	3.585%	27.9% → 20% (7.9% 변동)	2,961,696	838,797
금융권 전체	3.585%		1,846,392	522,926
비은행 전체	3.398%		1,817,481	487,888
은행			28,911	35,038
보유잔액	계수	최고금리 변동	저신용자 잔액	배제금액
금융권 전체	3.585%	27.9% → 20% (7.9% 변동)	329,395	93,290
비은행 전체	3.398%		178,783	47,993
은행			150,612	45,297

주1: 국민 전체는 신규대출 자료가 없어 금융권 신규 전체 자료를 이용함

주2: 금융권 전체=은행+여전사+저축은행+대부업

주3: 비은행=여전사+저축은행+대부업

주4: 은행=금융권전체-비은행전체

자료: NICE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될 경우, 배제자수는 국민 전체 등급에서 41만 4천명, 금융권 전체는 25만 8천명, 비은행은 24만명으로 추정된다. 금융권 전체 배제금액은 4조 6,054억원으로, 비은행은 2조 3,693억원으로 산출된다.

<표 27> 최고금리 24%인하시 저신용자(8~10등급)배제규모

(단위 : 명, 억원)

차주수	계수	최고금리 변동	저신용자 차주수	배제자수
국민전체	3.585%	27.9% → 24% (3.9% 변동)	2,961,696	414,090
금융권 전체	3.585%		1,846,392	258,153
비은행 전체	3.398%		1,817,481	240,856
은행			28,911	17,297
보유잔액	계수	최고금리 변동	저신용자 잔액	배제금액
금융권 전체	3.585%	27.9% → 24% (3.9% 변동)	329,395	46,054
비은행 전체	3.398%		178,783	23,693
은행			150,612	22,361

주1: 국민 전체는 신규대출 자료가 없어 금융권 신규 전체 자료를 이용함

주2: 금융권 전체=은행+여전사+저축은행+대부업

주3: 비은행=여전사+저축은행+대부업

주4: 은행=금융권전체-비은행전체

자료: NICE

4.5 VECM 모형 추정결과

4.5.1 인과관계 검정

본 연구에서는 공적분이 존재하므로 VECM모형을 이용하였다. 시계열 VECM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저신용자 변수와 다른 변수들 간에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Granger causality test(1969) 검정을 이용하였다. 금융권 전체의 분석 결과, 저신용자는 금리, 전산업생산지수, CPI에 인과하고 있으며, 반대로 나머지 변수들은 저신용자를 인과하지 않는다. 금리는 전산업생산지수에 인과하고, 전산업생산지수 또한 금리에 인과한다. CPI와 전산업생산지수도 서로를 인과하고 있다. 가장 외생적인 변수는 모든 변수를 인과하지 못한 최고금리이다. 최고금리, CPI, 금리, 전산업생산지수, 저신용자 순서로 외생적이다. 비은행 분석 결과는 금융권 전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만, 저신용자가 금리에 인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은행은 최고금리, CPI, 전산업생산지수, 금리, 저신용자 순으로 외생적이다.

<표 28> Granger causality 검정

결과 변수	원인변수				
	저신용자	금리	전산업생산지수	CPI	최고금리
금융권 전체					
저신용자		1.187	0.912	0.146	0.027
금리	12.362*		18.499*	2.024	0.567
전산업생산지수	22.346*	5.179*		8.897*	1.792
CPI	8.848*	0.166	28.463*		0.265
최고금리	0.410	0.321	0.287	0.014	
결과 변수	저신용자	금리	전산업 생산지수	CPI	최고금리
비은행					
저신용자		1.515	0.027	0.047	0.618
금리	3.454		15.923*	2.275	0.433
전산업생산지수	17.010*	4.790*		12.486*	1.062
CPI	11.395*	0.085	30.125*		0.311
최고금리	1.341	0.176	0.267	0.030	

주: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4.5.2 VECM 추정결과

4.5.2.1 금융권 전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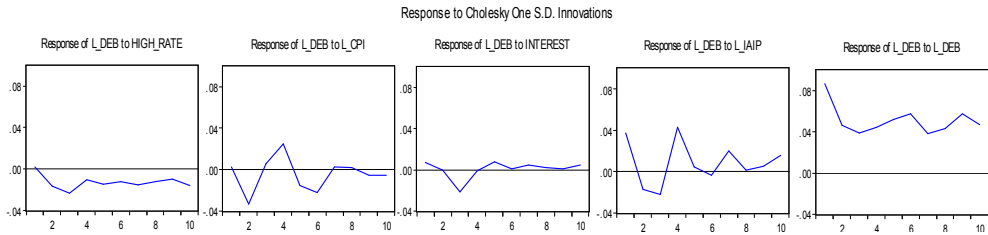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IRF)와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반응을 식별하였다. 시차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는 파라미터의 수를 과대식별하는 경향이 있어 SC(Schwartz Criteria)의 결과에 따라 금융권 전체는 2개의 시차로, 비은행은 1개의 시차로 적정 시차를 결정하였다.

먼저 금융권 전체 VECM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저신용자는 다른 변수들보다 자신의 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고금리에 대한 충격은 1기에 양의 반응을 보이다가 2기 이후에 음의 반응을 보인다. 이는 1달 정도의 기간에 영향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CPI, 금리, 전산업생산지수는 양과 음의 반응을 반복적으로 보인다.

<표 29> 금융권 전체 충격반응함수

	최고금리	CPI	금리	전산업생산지수	저신용자
1	0.002	0.002	0.007	0.037	0.087
2	-0.016	-0.034	0.000	-0.017	0.046
3	-0.023	0.005	-0.021	-0.022	0.039
4	-0.010	0.025	-0.001	0.043	0.044
5	-0.015	-0.015	0.008	0.005	0.052
6	-0.012	-0.022	0.001	-0.004	0.058
7	-0.016	0.002	0.004	0.020	0.038
8	-0.012	0.002	0.002	0.002	0.043
9	-0.010	-0.005	0.001	0.005	0.057
10	-0.016	-0.006	0.005	0.016	0.047

<그림 10> 금융권 전체 충격반응함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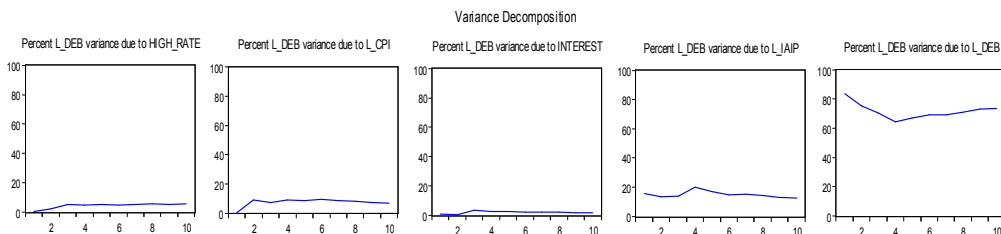


금융권 전체 분산분해 분석은 충격반응함수와 같이 저신용자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금리, CPI, 전산업생산지수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산업생산지수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최고금리, CPI, 금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명력이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각각 5.4%, 6.8%, 12.5%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

<표 30> 금융권 전체 분산분해

	최고금리	CPI	금리	전산업생산지수	저신용자
1	0.040	0.065	0.550	15.652	83.693
2	2.150	8.881	0.387	13.242	75.341
3	5.209	7.359	3.199	13.835	70.399
4	4.551	8.760	2.487	19.870	64.331
5	4.851	8.547	2.425	17.224	66.953
6	4.711	9.118	2.079	14.787	69.305
7	5.193	8.483	1.994	15.090	69.240
8	5.340	7.954	1.880	14.133	70.693
9	5.089	7.252	1.697	12.826	73.136
10	5.419	6.803	1.628	12.541	73.610

<표 11> 금융권 전체 분산분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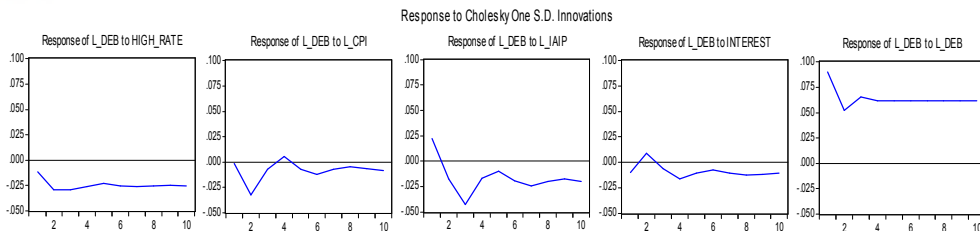
4.5.2.2 비은행 결과

비은행의 VECM모형 분석 결과, 금융권 전체와 마찬가지로 저신용자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산업생산지수에 대한 충격은 1기에 양의 반응으로 나타나지만 2기 이후에는 음의 방향으로 변한다. 금리 또한 마찬가지로 3기 이후에 음의 반응을 보인다. 결과를 통해 저신용자는 전산업생산지수가 1달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비은행 충격반응함수

	최고금리	CPI	전산업생산지수	금리	저신용자
1	-0.011	-0.002	0.022	-0.010	0.090
2	-0.029	-0.032	-0.018	0.009	0.052
3	-0.029	-0.007	-0.043	-0.006	0.065
4	-0.026	0.006	-0.017	-0.016	0.062
5	-0.023	-0.007	-0.010	-0.011	0.062
6	-0.025	-0.012	-0.020	-0.008	0.062
7	-0.026	-0.007	-0.025	-0.010	0.062
8	-0.025	-0.004	-0.020	-0.012	0.062
9	-0.025	-0.007	-0.018	-0.011	0.062
10	-0.025	-0.008	-0.020	-0.011	0.062

<그림 12> 비은행 충격반응함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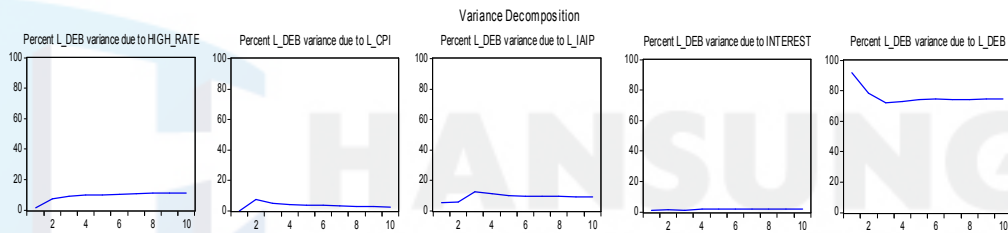


분산분해 분석결과, 저신용자 자신의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전산업생산지수와 최고금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저신용자에 대한 설명력은 전산업생산지수, 최고금리, CPI, 금리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보면 각각의 변수들이 9.2%, 11.2%, 2.6%, 2.0%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 비은행 분산분해

	최고금리	CPI	전산업생산지수	금리	저신용자
1	1.439	0.029	5.431	1.118	91.984
2	7.130	7.496	5.740	1.275	78.359
3	8.810	5.215	12.623	1.038	72.314
4	9.705	4.327	11.258	1.862	72.848
5	9.995	3.846	9.875	1.946	74.338
6	10.384	3.719	9.585	1.831	74.482
7	10.750	3.365	9.827	1.855	74.202
8	10.983	3.036	9.637	1.988	74.355
9	11.142	2.828	9.340	2.056	74.635
10	11.287	2.688	9.213	2.075	74.738

<표 13> 비은행 분산분해 결과



V. 결 론

본 연구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비은행금융권의 저신용자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정도를 추산하였다.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고신용자와 중신용자의 신규차주수가 증가한다. 저신용자의 신규차주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신규대출액은 증가한다. 비은행의 경우, 금융권 전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변동이 적게 나타난다. 대부업 또한 저신용자의 신규차주수는 꾸준히 감소하였고, 신규대출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금리 변동에 따른 배제규모 추정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금융권 전체는 최고금리가 1% 하락에 따라서 고신용자 1.065% 증가하고, 저신용자는 3.585% 감소하였다. 비은행은 최고금리가 1% 하락에 따라 고신용자 2.132% 증가하고, 저신용자는 3.398% 감소하였다.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는 경우, 국민 전체 저신용자 배제규모는 83.9만명, 금융권 52.3만명, 비은행 48.8만명으로 추정된다. 배제금액은 금융권 9.3조원, 비은행 4.7조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될 경우, 배제자수는 국민 전체 등급에서 41만 4천명, 금융권 전체는 25만 8천명, 비은행은 24만명으로 추정된다. 금융권 전체 배제금액은 4조 6,054억원으로, 비은행은 2조 3,693억원으로 산출된다.

금융권 전체 VECM 추정결과를 통해 각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저신용자는 다른 변수들보다 자신의 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고금리에 대한충격은 1기에 양의 반응을 보이다가 2기 이후에 음의 반응을 보이고, 1달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산분해 분석은 충격반응함수와 같이 저신용자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최고금리, CPI, 전산업생산지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비은행은 금융권 전체 결과와 같이 자신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분산분해 분석결과는 전산업생산지수와 최고금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배제자수와 배제금액은 신규차주수의 변화와 잔액을 기준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과소 추정될 수 있어 최소한의 배제자수와 배제금액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공급자의 비용이 수익보다 커지는 경우,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급측면을 감안하면 배제자수와 배제금액은 현재의 추정규모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상봉. (2015). 서민금융 수요결정에 관한 연구. 『신용카드리뷰』, 9(1), 49-72.
- 김상봉, 김우철, 유종만. (2009). 한국의 산업별 경기변동 추이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27(4), 17-41.
- 김상봉, 조경준. (2012). 개인파산의 주요원인 및 신용시장 채널의 효과분석: 동태적 경제모형 접근. 『대한경영학회지』, 25(5), 2271-2291.
- 금융위원회. 『대부업 실태조사』. 각 반기.
- 노형식, 이대기, 한재준. (2013). 『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 심지홍. (2014).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 소비자금융연구소.
- 이수진. (2016). 『금리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 이순호, 이상제, 박창균, 정도진 (2009). 『대부업체 원가분석』. 한국금융연구원.
- 이민환, 한재준. (2012). 『대부업 시장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일본 대금업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센터 정책심포지움 발표자료.
- 이민환, 한재준. (2013). 한일 대부업 시장의 금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 『금융연구』. 27(3), 1-28.
-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2008). 『소비자금융 신규사업자 입문과정: 소비자금융 실무』.

2. 국외문헌

Bai, J.(1997). Estimating Multiple Breaks One at a Time. *Econometric Theory*, 13(3), 315–352.

Bai, J. and Pierre, P.(1998). Estimating and Testing Linear Models with Multiple Structural Changes. *Econometrica*, 66(1), 47–78.

Bai, J. and Pierre, P.(2003). Computation and Analysis of Multiple Structural Change Model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8(1), 1–22.



ABSTRACT

A study on the exclusion size of financial low credit borrowers due to the change of the maximum interes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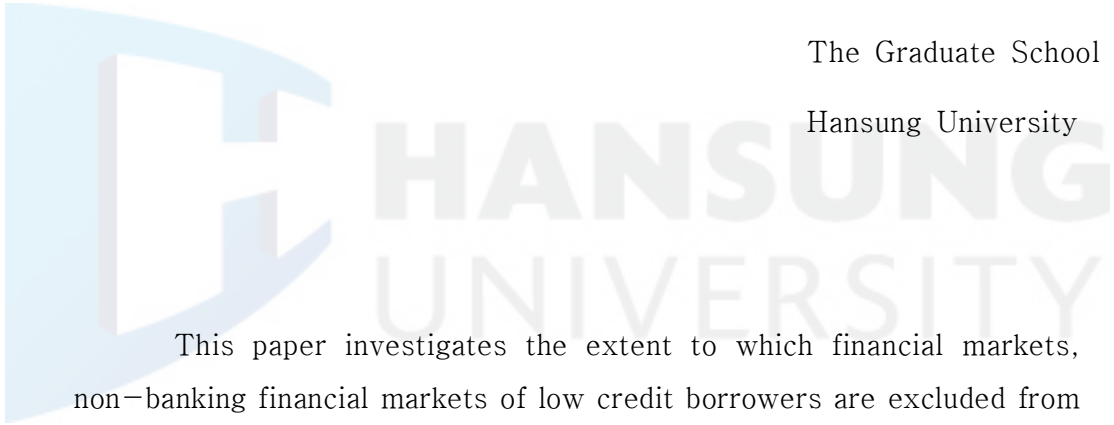
Hong, Hee-Ju

Major in Economics

Dep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logo of Hansung University i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t consists of a stylized blue 'H' shape. A large, semi-transparent watermark of the university's name, 'HANSUNG UNIVERSITY', is overlaid across the center of the pag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xtent to which financial markets, non-banking financial markets of low credit borrowers are excluded from the market due to the cut in the maximum interest rate. We estimated the exclusion of low credit borrowers using monthly data from July 2010 to July 2017.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umber of new borrowers for high and middle credit borrowers in the whole financial sector is rising, while the number of low credit borrowers is decreasing. Low credit borrowers of non-financial tend to be similar to the whole banking system, but they are smaller than the whole banking system. Throughout the credit lending status in each of financial markets, credit card company seems to have had the most new borrowers in entire period. Looking at the changes in lending by credit rating of loan

company among financial companies, the number of new low credit borrowers is steadily decreasing, while the amount of new loans is showing a rise trend. In this study, we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to estimate the exclusion scale due to the highest interest rate fluctuation. The number of exclusions and exclusion amoun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y were estimated to be underestimated because they are based on changes in new borrowers and balances. If the cost of a lending provider exceeds revenue due to a maximum interest rate cut, the number of exemptions and exemption amount may be much larger than the current estimate due to stop of reduce new loans.



Key words: Maximum interest rate, Lending, Low credit borrower,
Exclusion size, VECM model